

<발표문 요지>

제목: 안달루스의 잘라까 전투 고찰

이종화 (명지대)

안달루스는 후우마이야 왕국이 무너지고 군소 왕국 시대가 도래 한다. 이 군소 왕국들은 상호 경쟁하며 안달루스 땅을 참혹한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 결과 안달루스의 군소 이슬람 왕국들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를 기회로 안달루스 북부지역에 있던 기독교 세력은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였다. 당시 기독교 대표 세력이었던 카스티야 왕국의 군주였던 알폰소 6세는 활발한 국토 재정복 운동을 전개하여 안달루스 군소 왕국들을 멸망시키고 기독교 세력권으로 편입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무슬림 군소 왕국들은 아프리카의 무라비툰 왕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 요청에 호응한 아프리카의 무슬림 세력은 안달루스 문제에 개입한다. 이는 곧 안달루스에서 이슬람세력과 기독교 세력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 두 세력 간에 발생한 대표적인 전쟁이 잘라까 전투였다. 본 연구에서는 잘라까 전투의 발생 배경과 전투의 경과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표이다.